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권기대

전화 031-470-4290 / 팩스 031-735-4555

보도자료

2020. 11. 19.(목)

제 목

절굿공이 등으로 모친을 때려 사망하게 한 세 자매 구속기소 및 교사범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절굿공이 등으로 모친을 3시간 동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위 자매들에게 ‘모친이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라’며 범행을 사주한 교사범을 추가로 밝혀내어 기소하였음
- 범행 부인하는 자매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가 조사 진행하여 범행 계획, 가담 정도, 교사 사실 등을 입증하여 불구속 송치된 자매 2명을 직구속하고 교사범을 인지함

I

피고인 및 사건 개요

○ 존속상해치사

- 피고인 A(43세), 피고인 B(40세), 피고인 C(38세)
- 자매인 피고인들은 '20. 7. 24. 약 3시간 동안 밀방망이, 절굿공이로 친모인 피해자(68세)를 수회 때려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함

○ 존속상해교사

- 피고인 D(68세)
- 자매들(A, B, C)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상황을 이용하여, '20. 6.~ 7. 자매들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말하여 본건 범행을 사주

D는 피해자의 30년 지기 친구로. 피해자 자매들(A, B, C)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어 자매들도 D를 매우 신뢰하는 상황을 이용함

II

수사 경과

- '20. 7. 30. 경찰, 존속상해치사 사건 송치(A 구속, B, C 불구속)
 - ※ 피해자가 본건 구타 이후 상당시간 살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점 등 종합하여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로 의율
- '20. 8. 18. A 구속기소
 - ※ B, C 가담 정도 등 추가 확인을 위하여 사건 분리결정

○ '20. 8.~11. 추가 수사 진행

- B, C 구속영장 청구/발부(11. 2.)

- D를 존속상해교사로 인지

※ 현장에 없었던 D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존속상해교사로 의율

- D 구속영장 청구/기각(11. 9.)

※ 법원은 주거일정, 증거가 확보되어 없앨 우려 없음, 정범 3명 구속
등을 이유로 기각

○ '20. 11. 19. B, C 구속 기소, D 불구속 기소

III

참고 사항

○ CCTV 사각지대에서 주된 범행이 이루어져, B, C의 가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경찰에서 A만 구속된 상태로 송치됨

○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① 자매들간의 범행 계획, 가담 정도, 증거인멸 사실 등을 규명하고, ② D가 수년간 자매들을 현혹하며 존속상해를 교사하였고, 자매들이 D의 말에 복종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었음